

# 새봄, 학회가 기지개를 켜다

## ‘새얼굴’로 회장 교체...의욕적 활동 다짐

- 한국정토학회 사회복지세미나 준비
- 한국불교문화학회 사찰문화 집중 조명
- 한국불교학회 기금 모아 법인 등록
- 불교학연구회 학술지 연 4회 발간
- 보조사상연구회 소장학자 대거 영입

불교관련 학회들의 봄맞이가 분주하다. 각종 대회와 학회지 발간 등 살림을 꾸려나갈 회장 자리에 새 얼굴이 포진되고, 올 한해 동인의 활동도 의욕적으로 설계되고 있다.

2월 26일 한국정토학회 4대 회장에 법산(동국대 불교대학장) 스님이 취임한 것을 비롯해 21일에는 오출세(동국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한국불교문화학회 2대 회장이 됐다.

한국정토학회 법산 스님은 지금까지의 운영 틀을 유지하면서 학회의 기본 목적에 충실하도록 내실을 기하고, 또 한국불교문화학회 오출세 교수는 불교문화 전반을 결집하기 위해 좀 더 다양한 불교인을 포섭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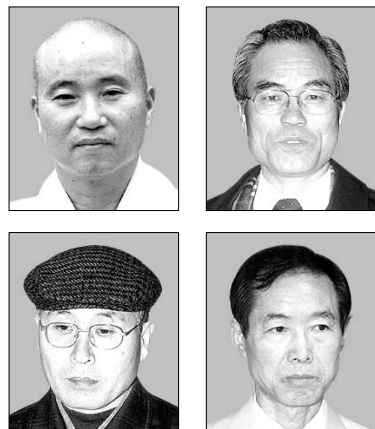
한국불교학회, 불교학연구회, 보조사상연구회, 한국선학회도 수장이 바뀌었거나 바뀔 학회들이다. 한국불교학회는 지난해 11월 이평래(충남대 철학과) 교수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요즘 이평래 교수와 한국불교학회 회원들은 한국불교학회의 사단법인 등록을 위한 밑거름에 한창이다. 이들은 불교학과 불교에 애정이 많은 지인과 사재를 찾아 사단법인 등록

을 위한 기금 모으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학회가 사단법인이 되면 대외적인 공신력을 인정받고, 후원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또한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후보로 올라있는 학회지가 등재지로 승격되는 데도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밖에도 이 교수는 현재 2년 임기 회장 임기를 1년으로 바꾸고 차기 회장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부처님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독주(獨走)는 독(毒)이 될 수 있다"며 2년이 긴 시간은 아니지만, 좀더 많은 회원이 주인 된 입장에서 학회에 참여하는 '야단법석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밝혔다.

불교학연구회는 이 학회의 산파라 할 수 있는 해주(동국대 불교학과 교수·1~2대 회장) 스님에서 이종표(전남대 철학과) 교수로 수장이 바뀐다. 불교학연구회는 2000년 창립해 역사는 짧아도 지난해 <불교학연구>가 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가 될 만큼 내실을 갖고 있다.

3대 회장이 된 이종표 교수의 포부도 이와 연결된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불교학연구>가 등재 학술지로 선정되기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법산 스님, 오출세 교수, 이평래 교수, 이종표 교수.

위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 2회 발행하던 학술지도 4회로 증간하고, 지금까지 학술발표회도 매달 꾸준히 개최해 내실을 쌓는다.

보조사상연구원은 몇 년간 공석이던 원장 자리를 3월을 전후해 메우고, 서울 법련사에 다시 등지를 틀게 된다. 원장에는 법산 스님 등 현 연구위원 가운데 한 명이 임명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젊은 학자들을 연구위원으로 보강한다. 연구 환경이 열악한 젊은 학자들의 연구의욕을 높이고, 사회적 이슈를 생산하는 동시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김방룡 선임연구원은 "연구원은 기존 학자들뿐만 아니라 신진 학자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해 불교학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라며, 이에 더해 "보조전서 강독 모임이나 스터디 모임을 활성화해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후배양성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news.com

##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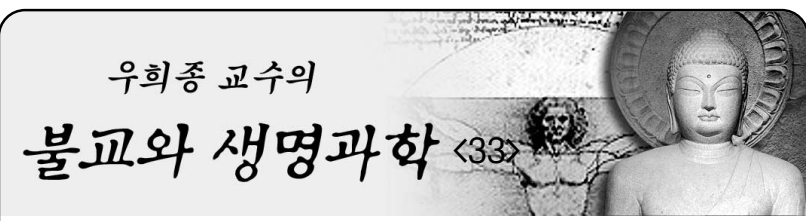
정토학회 회장 법산 스님  
“정토 사상의 궁극 대중 속에서 실행”

한국정토학회 학회지 <정토학연구> 출간기념회를 겸한 회장단 이·취임식에서 4대 회장에 취임한 법산 스님은 “매년 1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학회지를 발간해 온 현재의 틀을 유지하면서, 더욱 깊이 있는 정토사상 연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에도 9월 중순 경 '정토교와 사회 복지'를 주제로 제7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법산 스님은 “아미타불 신앙 홍보와 불국토 건설”이라는 기본 목적에 충실한 주제를 선정해, 궁극적으로는 정토 사상이 어느 곳에서나 뿌리내릴 기반에도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불교문화학회 새회장 오출세 교수  
“각 분야 전문가와 유기적 활동 모색”

2월 21일, 학회를 창립한 사재동 교수에 이어 한국불교문화학회 2대 회장에 취임한 오출세 교수는 다양한 불교인 포섭이 첫째 과제라고 밝혔다. “불교문화 전반을 유기적으로 결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불자들을 확보해 머리를 맞대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라고 말한 오 회장은 “유서 깊은 사찰 문화를 집중 조명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는 서울 근교 주요 사찰의 문화를 연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학회운영을 위해 재정안정화는 시급한 만큼 뜻있는 분들의 힘을 모을 생각입니다”라고 덧붙였다.



##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33>

실체와 관계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는 생명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도 복제 할 수 있고, 인간의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는 한계가 되었다. 그러나 암(癌)을 포함한 수많은 병들은 여전히 '난치병'으로 남아 있으며, 이들 질환을 잘 들어드보면 대부분 면역과 관계된 질병들이다.

사람의 유전자 지도가 다 밝혀지고 유전자와 세포조직을 통해 인간복제도 가능하다면서, 어쩌면 아직도 면역학적인 질병은 완치하기가 어려워 많은 사람들을 여전히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일까.

나(我)를 외부 이물(異物)로부터 보호하여 지켜주는 면역현상은 다시 말하여 신체적인 면에서 나를 이미 알고

수 있듯이 말이다. 면역 현상은 이렇듯 관계의 모습이기 때문에 유행하는 서양의 환원론적 방법에 의거, 단순히 특정 유전자나 생체 단백질질을 밝히는 분자생물학적 접근 방법으로는 결코 그 전체적 모습을 파악할 수 없다.

현재 우리가 유전자 몇 개를 조작하고 세포를 조작해 복제하는 것은 특정 물질대사를 조작해 무엇인가를 만들어 낸다는 것에 불과하다. 결코 나라는 개체를 포괄해 생명 현상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관계라는 것을 아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즉 현대 생명과학도 관계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수준이 제한되어 있기에, 사람의 유전자 지도 완성 등 겉보기에 는 대단히 발전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

## 과학 발달해도 '생명' 참 모습 몰라 물질 위주 접근보다 '관계' 살펴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를 규정하고 있는 면역현상을 공부하다보면 사대(四代)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요소들이 단지 '서로 균형을 이루며 계속 변화하는 관계'가 나를 나타내고 있음에 불과함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하여 개체로서의 나는 단지 수많은 요소들이 계속 변화하는 관계의 모양새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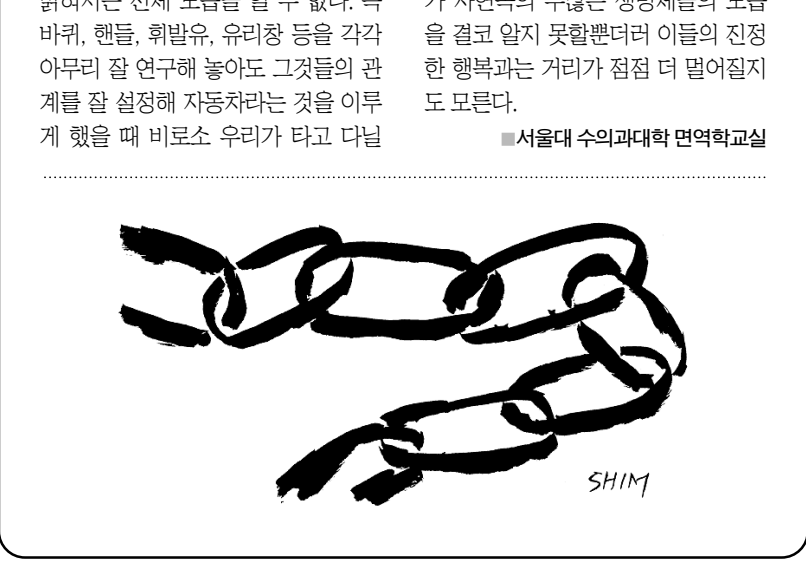
서로 상의상존(相依相存)하고 있는 관계성이란 단순히 그 구성 요소만을 밝혀서는 전체 모습을 알 수 없다. 즉 바퀴, 핸들, 휘발유, 유리창 등을 각각 아무리 잘 연구해 놓아도 그것들의 관계를 잘 설정해 자동차라는 것을 이루게 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타고 다닐

시대의 생명과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난치병, 불치병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모든 존재라고 하는 것은 실제 없는 관계에 불과함을 살펴본 부처님 말씀처럼 단순한 물질 위주의 생명과학의 방향과 접근 방식을 사물의 관계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풀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생명과학의 발전 자체가 인간 사회와 맺어가는 관계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결코 지금의 생명과학은 인간을, 더 나아가 자연속의 수많은 생명체들의 모습을 결코 알지 못할뿐더러 이들의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질지도 모른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 해남 스님 등 논문 실어... 중앙승가대 교수 논문집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논문집 제10집이 최근 발간됐다.

논문집에는 해남 스님의 '자장율사의 생애', 김응철 교수의 '종단개혁과정 평가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조사연구'와 김상영, 최태선, 이병욱, 황인규 교수의 공동연구 논문 '조선시대 불교금석문 조사연구(1)'는 조선시대에 조성된 고승비와 사적비 21종에 대한 교감작업 결과를 정리했다. 불교 탄압으로 사료가 부족한 조선시대에는 금석문 자료가 불교인들이 남긴 1차 기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는 당대 불교 사상,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으로 평가된다.

오유진 기자

## 조선총독부 설치 '문화재표석' 철거

일제시대 조선총독부가 설치한 문화재 표석(標石·목표나 표지로 세우는 돌)이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3월부터 완전 철거된다.

문화재청은 조선총독부가 우리 문화재를 조사해 보물로 지정하며 설치한 가로세로 각 18~31cm, 높이 1.6m의 석제인 문화재 표석이 일부 남아 있는 것을 확인, 이들을 모두 철거 정비한다고 2월 25일 밝혔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확인한 표석은 청양 장곡사상대웅전(보물 제162호), 경주 천군리 삼층석탑(보물 제168호), 경주 남산

답곡 마애 조상군(보물 제201호), 김천 오봉동 석조석가여래좌상(보물 제245호), 김천 갈항사 삼층석탑(국보 제99호) 등이 다. 표석의 전면에는 지정번호와 명칭을 뒷면에는 '조선총독부'를 음각했다.

광복 후 우리 정부가 새로운 문화재 지정표석을 만들며 세워, 일제 때 표석을 철거했으나 아직도 일부 남아 있어 정비하게 됐다. 문화재청 박종갑 사무관은 "향후 철거된 표석은 사진촬영과 실측 등 관련 기록을 남기고, 지역 박물관이나 향토 사료관 등에 보관해 역사 교육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유진 기자

# 마음이 밝으면 신이요, 마음이 편안하면 신이다.

※ 순서는 무순입니다.



백안산을 거꾸로 타고  
경검의 관문을 벗어나도다  
서암 스님 지음  
(전 조계종 총장)  
100부 한정



바람 소리는 조사의  
노랫소리  
성암 스님 지음  
(전 비승산 도선암 주지)  
150부 한정



좋은 푸르고 꽃은 붉은데  
서암 스님 지음  
(전 조계종 총장)  
300부 한정



구름은 바람을 따라  
흐르게 마련  
연애 스님 지음  
(동국학원 이사장)  
300부 한정



물같이 바람같이  
영도 스님 지음  
(전 조계종 포교위원장)  
300부 한정



꽃잎따리 하나 떨어지는  
데서 천지가 진동하고  
대서 스님 지음  
(공경선원장)  
300부 한정



바다 위로는 바람  
만들듯 새롭다  
진재 스님 지음  
(영광산 동화사 주지)  
300부 한정



나 혼자만이 갇혀진  
봄을 감상하네  
각성 스님 지음  
(의암역의 회주)  
300부 한정



만발이 하나도 돌아가는데  
지안 스님 지음  
(조계종 중앙총무원회)  
150부 한정



돌아서는 피리를 부는데  
니무산은 춤을 추더라  
육산 스님 지음  
(법림사 회주)  
300부 한정

나의 참생명, 부처님 생명 / 한담 스님 지음 (문수수범회 회장) 200부 한정

선화로 이어진 깨달음의 길 / 범주 스님 지음 (속리산 달마선원장) 150부 한정

물 흐르고 꽃이 핀다 / 지안 스님 지음 (은혜사 승가대학 원장) 150부 한정

나무만은 만물이 위에 슬피우니 / 혜중 스님 지음 (검교사 주지) 200부 한정

법 자체는 허물이 없는데 / 천소 스님 지음 (필보산 석탄사 주지) 300부 한정

강악산 마루에 일월이 높고 / 일운 스님 지음 (갑악산 백련사 주지) 100부 한정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 말하고 / 혜성 스님 지음 (삼각산 도선사 회주) 300부 한정

민물이 도의 근원이요 공의 어머니 / 성공 스님 지음 (안양사 주지) 300부 한정

천지는 나와 더불어 그 뿌리가 같고 / 구암 스님 지음 (전 불화종 총장) 300부 한정

생명을 나누어 주는 영혼의 어머니 / 효관 스님 지음 (오봉산 오봉사 회주) 300부 한정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본뜻을 찾아 / 천은 스님 지음 (두물산 대흥사 주지) 100부 한정

목마는 길게 울고 동사범은 춤을 추네 / 화산 스님 지음 (보광원 주지) 300부 한정

발 밑에 닿은 길은 걸어가면 되는 것 / 원광 스님 지음 (검교 선영암 한주) 200부 한정

계곡을 흐르는 물은 마르지 않는 법 / 지중 스님 지음 (모악산 불갑사 주지) 300부 한정

조건 따라 생겨난 것은 조건 따라 사라지는 것 / 도성 스님 지음 (태종사 법주) 200부 한정

사비가 정토요 정토가 사바 / 도우 스님 지음 (삼각산 도선사 영불선원장) 300부 한정

푸른 뿔뿔리를 지나내 신발이 숲도 없네 / 설산 스님 지음 (삼각산 정토사 회주) 300부 한정

마음 한번 바꾸면 기기가 극락 / 법산 스님 지음 (전 사회복지법인 성리원 이사장) 350부 한정

집착하지 아니하면 맑고 적음에서 벗어난다 / 인환 스님 지음 (동국대 명예교수) 300부 한정

지혜로운 자는 깨달음을 이루고 어리석은 자는 생사를 이룬다 / 일류 스님 지음 (차악산 약수암 주지) 300부 한정

산꼭대기 뿌리 없는 초목은 바람이 불지 않아도 잎이 스스로 지더라 / 혜경 스님 지음 (속리산 법주사 회주) 300부 한정

물위에 비친 달빛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것처럼 / 경부 스님 지음 (서운산 석남사 주지) 200부 한정

금강산 산정에 바위옹이 하늘 높이 날아 오르고 / 대성 스님 지음 (금강산 법어사 선덕) 150부 한정

나와 내가 따로 없는 곳에서 연꽃은 피어나고 / 법연 스님 지음 (전 통정총무원회 회장) 70부 한정

주장자를 들으니 삼천대천세계가 바뀔 것이 하나 없고 / 지성 스님 지음 (팔공산 동화사 주지) 200부 한정

허허하루, 그때그때, 두두물물이 수행이고 좋은 날이고 진리 / 도업 스님 지음 (동국대 불교문화대학 교수) 300부 한정

나의 또 하나 다른 생명으로 피어나는 꽃을 본다 / 진관 스님 지음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300부 한정

부처도 죽고 조지도 죽고 쇠나무에 꽃이 피니 / 중성 스님 지음 (연제선원 주지) 300부 한정

평화통일은 진정한 대승보살행 / 법다 스님 지음 (조국평화통일보고회 협회장) 300부 한정

그동안 보내주시는 성원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불자들이 다 함께 큰스님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각 스님 별로 한정 판매를 실시합니다. 더불어 각 권을 저렴한 가격으로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큰스님들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1세트 (책 1권 + CD 1장) 책(양장) + CD = 정가 50,000원 → 특별공급가 25,000원 (배송비 포함) \* 10권 구입시 20만 원 (배송비 포함) 구입문의 : 02-446-0393 입금계좌 : 신한은행 215-01-000491 김관구